

농진청, 가뭄·폭염 대응 농작물 현장 기술지원 강화

용수 확보·병해충 예찰·작물별 관리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8월 13일까지 전남광주특별자치 고흥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사천시의 농업 현장을 찾아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생육과 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했다.

8월 6일 기준 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58.1밀리미터(mm), 저수율은 36.8퍼센트(%)로 평년의 각각 59.5퍼센트(%), 51.1퍼센트(%) 수준이다.

단감과 벼 등을 중심으로 1,538헥타르(ha)에서 생육 저하 피해가 집계돼 농업용수 확보와 작물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과 관계기관은 하천수 확

용과 지하수 우물(관정)을 개발하는 등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달 초부터 5주간 합동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생육과 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기술지원 (농진청 제공)

점검반을 운영하며 벼멸구와 탄저병 등 병해충 예찰도 강화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자치 고흥군에서는 풀무치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대책을 가동한다.

90밀리미터(mm), 이상 비가 내릴 경우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경보를 발령하고, 재배 전 논물 대기(담수) 지도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가뭄과 폭염 피해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농가에서는 작물 관리와 함께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한국사과연합회, 사과의무자조금 워크숍 개최”

농협 협력 강화로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대경사과원에농협 조합장)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충북원예농협 조합장)와 공동으로 8월 19일 중앙과수요목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사과 주산지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과의무자조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무자조금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자단체와 주산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조금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사과의무자조금 제도의 운영 방향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병해충 및 동해 예방 등 현장 재배기술 교육도 함께 받았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은 인사말에서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자조금법 개정, 국내외 과수산업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산지 농협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사과연합회 최상욱 부장이 사과의무자조금의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 주요 사업 및 지원 내용, 납부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무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자조금 제도의 연계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자조금 미납 시 일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사항도 안내됐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자조금

납부와 생산자단체·주산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조금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어 사과 수출 선도조직인 ‘케이애플(K-Apple)’ 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사과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앞으로 주산지 농협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의무자조금 활성화를 통해 공동출하, 수급안정, 정책 대응 등을 체계화하고 사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농협상호금융, AI 확산 워크숍 개최

상호금융 업무 특화 AX 추진전략 논의

농협상호금융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넘어 금융서비스와 조직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전사적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낸다.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윤성훈)은 13일 ‘AI 확산 워크숍’을 개최하고 범농협 AI 도입 방향과 상호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를 혁신하는 AX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부서별 업무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갈 계획이다.

범농협 차원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AI 회의록, 문서 초안

작성 등 임직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도 이를 기반으로 뉴스 클리핑, 금융시장 분석 등 상호금융 업무 특성에 맞는 생성형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김인중 사장이 본사 확산 운동 행사에서 무늬 맥문동을 심고 있다.



▲김인중 사장이 본사 확산 운동 행사에서 무늬 맥문동을 심고 있다.

임직원·어린이집 원생 무늬 맥문동 식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식물의 가치를 의미 있게 알리고 생활 속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풀꽃나무 확산 운동’에 동참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우리 풀꽃나무 확산 운동’에 발맞춰 임직원의 생활 속 실천과 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자생식물 확산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한반도 자생식물의 생활 속

보급 확대와 종자주권 강화를 위해 ‘우리 풀꽃나무 심기-꽃의 광복’을 주제로 확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구상나무와 미스키파 일락 등 우리 식물이 해외로 반출됐다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를 계기로 우리 식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농어촌공사는 우선 생활 속 실천을 위해 14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사내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산 운동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상징 식물인 무늬 맥문동을 함께 심었으며, 어린이들에게 화분을 선물해 우리 식물을 직접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개발사업에도 자생식물 활용을 확대한다. 공사는 지난 7월 전남 함평군 해보면 창서마을에서 주민참여형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해 우리 꽃 화분 만들기 교육과 함께 주민들에게 우리 식물의 가치와 의미를 알렸다.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우리 식물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우리 풀꽃나무의 가치와 의미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리 풀꽃나무는 한반도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 우리 식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공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관원, 온라인 비료 거짓·과대광고 163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와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63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료를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는지와 비료 등록번호, 종류, 명칭 등 보증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총 163건에 대해 판매금지, 광고 문구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

촉진’, ‘당도증진’ 등 비료를 생장 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비료를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유튜브를 통한 비료 광고도 점검해 관련 영상을 운영사에 신고하고, 영상에 연결된 판매 링크를 삭제·차단했다. 농관원은 향후 유튜브 측에 비료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농관원은 비료 품질관리를 위해 주성분과 유효물질 등 공정규격 준수 여부를 매년 검사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료에 대해서도 연간 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신발소독소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등) 방치 금지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